



해외출장 가이드

콜롬비아 보고타 출장자료

【 목 차 】

I. 현지 체류정보	01
II. 콜롬비아 현황	06
III. 정치/경제/주요산업	09
IV. 수출입 및 외국인투자 동향	15
V. 한-콜 교역 및 투자 통계	18
VI. 콜롬비아 비즈니스 및 체류 정보	23





I. 현지 체류정보

1. 비자/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비자

- 비자면제협정으로 무비자(90일 유효)입국 가능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소유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국 허가
-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V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유효
 - 신청수수료: UDS 52(약 192,000 COP), 현금/카드 결제가능
 - 비자비용: 한국 국적 소유자 무료

□ 체류 연장

- 체류 연장 방법
 - 외무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수수료 지불. 그 후 비자승인 안내 메일이 오면 외무부에 가서 신청한 비자 스티커를 수령
 - 외무부 홈페이지 주소: <https://www.cancilleria.gov.co/>
 - 장소 : Cancillería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외무부)
 - 주소 : D.C, Ac. 100 #11b-27, Bogotá (방문 시 여권 필수 지참)
 - 구글 지도 검색어 : Cancilleria bogota / Migracion bogota
 - 연락처 : +57-1 605 5454
 -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스티커 및 신분증 발급 서비스 중단 중
- 출입국 시 유의사항
 -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 까다롭지 않고, 세관신고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함
 - 입국 시 위생법 관련 품목의 통관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
 - * 육류, 곡식류 제품, 분말 제품 등
 - 입국심사 후 간단한 짐 검색 절차를 거치며, 간혹 짐이 많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입국장으로 나가기 전 세부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음



2. 기후

☐ 기후

- 기후는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열대, 온대, 고산기후로 구분
 - 보고타는 고산기후에 해당(고도 약 2650m, 평균기온 13.5°C)

콜롬비아 기후

기후	아열대	온대	고산기후
고도	1,000m 이하	1,000~2,000m	2,000 이상
평균기온	24도	17~24도	12~17도

- 보고타 평균 강수량 72mm (가장 건조한 달: 1월 34mm, 가장 습한 달: 10월 119mm)

3. 시차/근무시간

☐ 시차

- -14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1월1일 1:00 P.M = 대한민국 서울 1월2일 3:00 A.M)

☐ 근무시간

분류	시간
정부부처	09:00 - 16:00
민간기업	09:00 - 18:00
식당	09:00 - 22:00

* 상기 근무시간표는 평균 근무시간으로 기관별로 상이하며, 점심시간 또한 다름 (점심시간은 평균 1시간30분)

- 일부기업 및 식당의 경우, 오후 Break Time이나 Nap time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근무시간 확인 후 방문 필요



4. 환전

□ 환전

- 환율 : US \$ 1 = COP 3,769.67 (20120.8.9 기준)
- 출국 전, 원(Won)화를 달러(US\$)로 환전 후 콜롬비아 엘도라도 국제공항 (Aeropuerto el dorado) 및 보고타 시내에서 환전 가능
- 콜롬비아 현지에서 달러(US\$) 환전 시 적용 환율은 당일 환율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므로 콜롬비아에서 달러(US\$) 환전 시 환율 고려 필요

5. 교통/통신

□ 항공 정보

- 항공사 별 노선 및 운행하는 항공이 다름
 - 서울에서 출발하여 콜롬비아 보고타로 오는 직항 항공이 없기 때문에 미국, 유럽, 멕시코 등을 경유함
- 콜롬비아 내 국내 비행은 국영 항공사인 아비앙카(Avianca)와 비바 콜롬비아 (Viva Colombia)와 같은 저가 항공사도 존재
 - * 코로나19로 국가보건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현재 제한적으로 국제항공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항 중

○ 택시(보고타 기준)



콜롬비아 택시

- Taxi 기본료 : COP 4,100
(100m나 24초마다 COP 82 상승)
- 주말 및 야간할증 : 주말 20:00~5:00까지 COP 2,000추가
- 공항 일반 택시 : COP 4,100추가
- ※ 택시는 예약도 가능하나 날씨나 시간에 따라 예약이 어려울 때도 있음



6. 공휴일 (2021년 기준)

날짜	공휴일명
1월 1일	신정
1월 11일	동방박사의 날
3월 22일	성 요셉 축일
4월 1일	성 목요일
4월 2일	성 금요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7일	예수 승천일
6월 7일	성체성혈대축일
6월 14일	예수 성심 대축일
7월 5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7월 20일	독립기념일
8월 7일	보자카 전투의 날
9월 16일	성모 승천 대축일
10월 82일	인종의 날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56일	카르타헤나 독립기념일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25일	성탄절

7. 주요관광지

1] 소금성당



- 홈페이지: <https://www.catedraldesal.gov.co>
- 보고타 시 북부 시파키라(Zipaquira)시에 위치해 있으며, 소금광산 내부에 건축된 지하성당
- 지표면에서 170m 아래 지하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성당을 만들어 놓고 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예수 고난을 상징하는 12처소를 마련해 두고 있음



2] 몬세라테 성당



- 해발 : 3,152m
- 홈페이지: <http://www.cerromonserrate.com/html/es/>
- 보고타시 중심부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시내 주요 관광지로 꼽힘
- 작은 산봉우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으며, 성당까지 케이블카로 이용 가능
-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함

3] 황금박물관



- 홈페이지: <https://www.banrepcultural.org/bogota/museo-del-oro>
- 콜롬비아 수립 전·후의 원주민 문화와 금 세공기술 및 공예품, 도자기 조각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곳으로 1938년 개관. 3만 4천점이 넘는 금 장신구와 2만점이 넘는 도자기 조각 등 다양한 원주민 문화를 감상할 수 있음.

4] 보테로 미술관



- 홈페이지: <https://www.banrepcultural.org/bogota/museo-botero>
-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화가인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 곳. 2000년에 개관하였으며, 보테로의 대표적인 그림과 조각 등을 감상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보건비상사태로 현재 상기 4곳 일시적 중단 혹은 인원수 제한 입장 중



II. 콜롬비아 현황

1. 일반현황

○ 정식국명	콜롬비아 공화국 (Republica de Colombia)
○ 위 치	남미 서북부
○ 면 적	1,142천 km ² (한반도 면적의 약 5배)
○ 기 후	고도에 따라 차이 아열대(1,000m이하), 온대(1,000~2,000m), 고산기후(2,000~3,000m) 등
○ 인 구	51,049,498명 (2022년 상반기기준. 통계청 인구조사 추정치)
○ 인 종	백인/메스티소(87.58%), 흑인 (6.68%), 원주민(4.31%), 기타(1.43%) (콜롬비아 통계청 2018년 자료 기준)
○ 독 립 일	1810. 7. 20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수 도	보고타(Bogota)
○ 주요도시	메데진(Medellin), 깔리(Cali) 등
○ 행정구역	보고타(Distrito Capital) 및 31개 주(Departamento)
○ 언 어	스페인어
○ 종 교	가톨릭 92%, 기타 8%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4년 단임제)
○ 국가원수	이반 두케 (Ivan Duque) 대통령 (2018년 08월-2022년 8월)
○ 입 법 부	상·하원 양원제(상원 108석, 하원 166석)
○ 주요정당	국민연합사회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 정부성향	친미우익성향
○ 시 차	한국과 14시간
○ 화 폐	콜롬비아 페소(COP)
○ 환 율	US\$ 1 = COP 3,769.67 (2020.8.9일 기준)



□ 시장 현황

- 비즈니스 환경
 - 2020 World Bank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비즈니스 환경 67위(세계 190개국) 국가로 특히 사업시작과 국외 거래 및 파산해결이 쉬운편이라고 평가함.
- 산업 환경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를 33%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법인세 감면 정책 실시.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100% 감면 예정이며 산업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100% 감면 예정
- 정치 환경
 - (행정부) 투표로 선출되며 4년의 임기(재임 불가능)를 가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통령, 장관, 의원 및 지자체 시장들로 구성됨
 - (입법부) 166명의 하원의원과 108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 양원제를 실시하며, 비례제도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임기는 4년
 - (사법부) 사법부는 4개의 최고법원으로 구성(대법원, 최고행정법원, 헌법재판소, 최고법원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 시장 특성

- 중남미 제3위 내수시장
 - 2019년 기준, GDP 3,236억 달러, 인구 약 5.1천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남미 3대 시장 (1위 브라질, 2위 멕시코)
 - 안데스 공동체, 태평양 동맹 등 역내 주요 경제블록 회원국으로 인구 2억 명 이상 거대 진출가능시장 보유
 - 2019년 기준, 수출 394억 달러, 수입 527억 달러로 13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음

주요 거시경제 지표

지표	2018	2019	2020	2021
명목GDP (십억 달러)	331.8	323.6	268.1	290.2
GDP 성장률 (%)	2.6	3.1	-7.7	4.4
민간소비 증가율 (%)	3.6	4.5	-9.2	5.2
정부소비 증가율 (%)	5.6	4.3	8.0	0.3
상품/서비스 수출 증가율 (%)	3.9	2.6	-8.7	4.0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율 (%)	7.9	8.1	-3.1	3.6
농업성장률 (%)	2.1	1.9	1.0	4.0
제조업성장률 (%)	1.2	0.9	-6.0	3.8
서비스업 성장률 (%)	3.5	4.3	-9.4	4.8
1인당 구매력 (달러)	15,033	15,635	15,501	15,180
실업률 (%)	9.7	10.5	20.0	16.6
환율(폐소)	3,249	3,281	3,710	3,698
물가상승률(%)	3.18	3.8	1.1	4.3
무역수지 (백만 달러)	-5,209	-8,451	-9,260	-9,486
상품수출 (백만 달러)	44,373	42,368	32,338	35,486
상품수입 (백만 달러)	-49,583	-50,819	-41,648	-45,367
서비스 수지 (백만 달러)	-3,896	-3,805	-3,951	-2,384
총 외채 (백만 달러)	131,534	139,649	141,708	145,263
총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47,888	52,642	47,856	50,047

주: 2020년, 2021년 전망치

자료: EIU, DANE, Banrep, Economist

○ 글로벌 경쟁력 지수

-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2019년 141개국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콜롬비아는 57위차지(싱가포르 1위, 한국 13위). 경쟁력 지수가 낮은 주된 이유로는 치안문제, 미래지향성이 부족한 정부 기관 능력과 열악한 국내 제품 경쟁력 등 때문

○ 완제품 중심의 수입시장

-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재 생산 기반 취약
- 전자제품, 의료기기, IT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 빈부격차로 소비시장 양극화

- 지역 및 계층별 소득격차에 따른 상류, 중상 및 저소득층의 시장 양분화



- 소득 계층별로 생활 및 소비 패턴에 뚜렷한 차이
- 한국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
 - 자동차, 생활가전, 휴대전화 등 우리 기업 제품들은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보유.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뒤지는 경향이 있으나 품질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
- 국가 신용평가 등급
 - 2020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Fitch Rating사는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BBB-(적절한 상태)로 하향조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과 경제성장저하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신용평가회사인 Moody's는 2020년 콜롬비아를 투자적격등급 중 신용상태적절등급인 Baa2로 평가 유지

III. 정치/경제/주요산업 및 전망

1. 정치 환경

□ 콜롬비아 정치 환경

정부형태	대통령제(4년 단임제)
국가원수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입 법 부	양원제(상원108석, 하원166석)
주요 정당	U(우)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
정부성향	자유민주주의, 친미우익 성향

- 콜롬비아 정치 성향
 - 콜롬비아는 좌파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기타 남미국가(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와는 다르게 우파의 성향이 강함
 - * 제58대 Uribe(우리베)대통령, 제59대 Santos(산토스), 현 Duque(두케)대통령까지 우파출신
- 콜롬비아 부패 환경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80개국 중 96위.(덴마크, 뉴질랜드 1위, 한국 39위)



2. 경제 환경

□ 콜롬비아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 2020년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 7.7% 전망
- 2019년 연말 코로나19발생 이전 콜롬비아 정부가 전망한 2020년 경제 성장률은 4%였으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장기간 전 국민 자가 격리를 실시하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감소

연도별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경제 성장률	1.7	2.5	3.3	-7.7	4.4	5.2

주: 2020~2022년 전망치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소비

- (민간 소비 증가 전망) 2019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0년 3.2%로 민간 소비 증가를 전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
- 콜롬비아 정부는 경제활동 재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경제활동 개방을 계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수입 활동 감소로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연도별 민간소비 증감률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3.6	4.5	-9.2	5.2

주: 2020년~2021년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외국인 직접 투자

- 2020년 1분기 기준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분야는 전력/가스/수도 및 공공서비스 분야

○ 직접 투자 국가

- 2020년 1분기 기준,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7억 3,700만 달러)이며, 스페인



(7억 2,600만 달러),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4억 4,200만 달러)가 각각 2위와 3위

○ 정부지출

- 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직접 지원프로젝트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지출 중 약 1억 7천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출 예정

○ 환율

- 2020년 상반기 평균 환율은 3,680.7 페소로 연초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1월 중순경부터 상승 유지. 3월 19일 역사적으로 최저치인 4,153.91페소를 기록한 후 다시 소폭 하락
- 2020년 연평균 환율은 1USD= 3,687.95COP (2020년 8월 5일 기준)

연평균 달러대비 콜롬비아 페소화 환율 변화 추이

(단위: COP)

2018	2019*	2020	2021
3,249	3,281	3,710	3,698

주: 2020, 2021 전망치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EIU

○ 물가상승률

연도별 물가상승률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물가상승률	3.18	3.8	1.1	4.3

주: 2020, 2021년 전망치

자료: Banrep

- 2020년 상반기 기준 식품 및 비주류 분야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건강분야 순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현황

(단위: %)

분야	2020년 상반기
식품 및 비주류	5.99
교육	4.87
건강	3.03
주류 및 담배	1.76
식당/숙박	1.65
교통	0.99
주거, 수도, 전기, 가스 등	0.50
유흥/여가	0.25
가구 가정용품 및 일반 가정용 소비제품	-1.06
의류	-2.16
정보/통신	-5.76
기타 상품/서비스	2.19

자료원: 콜롬비아 통계청(DANE)

○ 실업률

- 코로나19 감염 증가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장기간 전 국민 자가격리로 콜롬비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2019년 평균 실업률은 10.5%였으며, 자가 격리 실시로 실업인구가 발생한 주요 산업은 호텔/관광 분야

콜롬비아 연도별 실업률 및 인구 동향

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업률(%)	9.7	10.5	20.0	16.6

주: 2020년~2021년 전망치

자료원: Economist

3. 산업 환경

□ 콜롬비아 산업 환경

- 콜롬비아는 1차 산업(광업, 석유 등)에 매우 의존적이었으나, 2012년부터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생산력 강화에 힘씀
- (산업별 증감률) 2020년 1분기 기준 주요 산업은 격리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도소매업(+ 3.20%), 농축산업(+ 2.30%)분야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증감률

(단위: %)

산업	2018	2019	2020 1Q
도소매업	6.2	4.7	3.2
농축수산업	4.2	3.9	2.3
전기/가스/수도	2.3	2.7	1.5
전문업(의료, 법률 등)	8.0	3.6	0.8
부동산	4.6	2.8	0.2
정보통신	3.6	0.4	0.2
금융	8.3	4.6	0.1
공공서비스	7.5	4.9	-1.9
광업	16.6	2.0	-2.4
문화/오락	3.8	2.4	-3.9
제조업	5.1	1.4	-4.5
건설	-2.0	-0.1	-11.4

자료원: 콜롬비아 통계청(DANE)

☐ 1차 주요산업

○ 커피

-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으로 세계 커피 수확량의 약 9% 차지

커피 수확량 현황

(단위: 1,000자루, 60kg/1자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커피 생산량	14,232	14,194	13,557	14,752	14,200
증가율(%)	0.4	-0.27	-4.4	9.0	-3.4

주: 2020년 전망치

자료원: Federacion Nacional de Cafeteros de Colombia

○ 화훼

- 콜롬비아는 세계 2위의 화훼 수출국으로 약 14만 명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 콜롬비아 화훼 최대 수입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순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수출 예정이었던 화훼의 약 50%가 취소됨.



화훼 수출량 및 수출액

(단위: 톤,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8	2019
수출량	246,118	259,523	262,367
수출액	1,417	1,477	1,495

자료원: PROCOLOMBIA, GTA

□ 2차 주요산업

○ 제조업

-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제조업 GDP전체 비율 중 13.07%를 차지
-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 -6.0%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전 국민 자가 격리를 실시하면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식품이나 음료생산 산업 및 화학분야 산업이 생각을 유지하고 있음.
- **(식료품 제조)** 생활유지의 필수품으로 식품과 음료 제조 산업은 격리기간 동안에도 수요가 증가. 콜롬비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식품 및 음료 제조 산업의 2020년 상반기 성장률은 3.7%를 기록. 특히 식품제조 산업의 성장은 콜롬비아 농업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화학분야)** 콜롬비아의 화학생산 및 의약품, 개인위생/관리용품은 코로나 19 대유행에서 높은 소비가 필요한 필수제품으로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 수요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화학분야 산업은 2020년 상반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 다만 특수 화학 물질이나 기타 생산과정에서 정교함이 요구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국내조달이 불가능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IV. 수출입 및 외국인투자 동향

1. 수출입 동향

□ 수출입 동향

- 2020년 8월부터 콜롬비아-이스라엘 간에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FTA 체결국임. 2012년부터 일본과도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對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일각에서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콜롬비아 주력 수출 품목은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 제품임('19년도 기준 총 수출액의 56.56% 차지),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및 원유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이 콜롬비아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2년간 총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전년 대비 증감률 : '18년 11.19%, '19년 2.87%), 콜롬비아 제조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완제품 및 2차 상품 중심의 수입은 꾸준할 전망

□ 국가 및 품목별 교역 현황

-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점유율 : 수출 28.6%, 수입 26.448%)로 해당 국가 경기 변화에 민감하며, 최근 중국의 수출입 점유율 꾸준히 증가 추세

콜롬비아 10대 교역 대상국(2020년 상반기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FOB)				수입 (CIF)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4,814	28.60	1	미국	5,562	26.44
2	중국	1,152	6.84	2	중국	4,516	21.49
3	파나마	1,002	5.96	3	멕시코	1,390	6.61
4	멕시코	748	4.45	4	브라질	1,043	4.96
5	에콰도르	733	4.36	5	독일	818	3.89



6	브라질	670	3.98	6	일본	488	2.32
7	칠레	546	3.25	7	프랑스	471	2.24
8	터키	543	3.23	8	인도	470	2.24
9	독일	469	2.79	9	스페인	397	1.89
10	이탈리아	445	2.65	10	캐나다	377	1.79
16	한국	303	1.84	13	한국	332	1.58
총 수출액		16,834	100	총 수입액		21,040	100

자료원: SICEX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6.84%), 파나마(5.96%), 멕시코(4.45%), 에콰도르(4.36%) 등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21.47%), 멕시코(6.61%), 브라질(4.96%), 독일(3.89%) 등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출) 2020년 상반기 기준 168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 23.9% 감소
- 주요 품목으로 원유(30.64%), 석탄(12.02%), 커피 원두 등
- (수입) 2020년 상반기 기준 251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 16.3% 감소
- 주요 품목으로 통신 기기(3.37%), 옥수수 (2.68%) 등.

콜롬비아 10대 수출입 품목(2020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FOB 기준)				수입(CIF 기준)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원유	3,529	20.97	1	통신기기	708	3.37
2	석탄	2,263	13.45	2	기타 옥수수	563	2.68
3	커피원두	1,084	6.44	3	기타 자동차용 휘발유	438	2.09
4	금	997	5.92	4	의약품	427	2.03
5	항공기	521	3.10	5	경질류 및 조제품	350	1.67
6	바나나	446	2.65	6	자동자료처리기계	295	1.40
7	석탄	417	2.48	7	승용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 3,000cc)	274	1.30
8	화훼	329	1.96	8	메슬린	260	1.24
9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327	1.94	9	자동차 휘발유	259	1.23
10	코코스	312	1.86	10	대두유 오일-케이크	249	1.18

자료원:SICEX



2. 외국인 투자 동향

□ 외국인 투자 현황

- 1990년대 경제 자유화 이후 꾸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장려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 보유 (국방 및 핵폐기물 처리 사업 제외)
 - * Decree 2080/2000: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자국 기업과 동등한 법 적용
- 콜롬비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매니저 자격 규제
 - 주식시장 내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 펀드매니저 자격을 규제하기로 결정
 - 국가 전문 주식시장 등록 위원회에 의해 승인 되어야 펀드매니저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방송통신업은 외국인 지분율을 40%로 제한. 보험, 금융업, 광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허가 필요
 - 군사 및 민간/도시 보안에 대한 투자 불가
- (주요 투자 산업) 2020년 1분기 기준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분야는 전력/가스/수도

주요 산업별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산업별	2018	2019	2020 1분기
석유산업	2,537	2,755	590
농림수산업	214	359	55
광업	1,690	1,793	513
제조업	1,119	1,582	329
전력/가스/수도	64	316	668
건설	669	848	172
유통/요식/호텔	1,264	1,209	286
물류/교통/통신	1,482	1,209	142
금융/부동산	1,947	2,929	496
공공서비스	366	571	339
총 투자액	11,352	13,571	3,590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 산업 및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FDI) 현황

○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 2020년 1분기 기준,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에너지산업과 석유/광업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산업으로 전체 투자 산업의 약 49%를 차지

○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 2020년 상반기 기준, 주요 투자국은 스페인(11억 6,400만 달러)이며, 미국(10억 3,800만 달러), 스위스(5억 4,700만 달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對 콜롬비아 국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20년 상반기
1	스페인	1,164
2	미국	1,038
3	스위스	547
4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480
5	캐나다	346
6	영국	245
7	파나마	193
8	우루과이	165
9	네덜란드	119
10	케이맨 제도	115
38	한국	1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V.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 통계

1.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 對 콜롬비아 수출입 현황

- 2020년 상반기 한국 무역 수지 적자
 - 對 콜롬비아 수출 2억 9,000만 달러, 수입 3억 4,300만 달러, 총 5,300만 달러의 무역 적자
 - 수출은 전년 대비 41.1% 감소, 수입은 0.9% 증가
- 교역 구조는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임

한국 對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15	1,128	-25.21	323	-46.76	805
2016	853	-24.43	432	33.8	420
2017	813	-4.6	651	50.5	162
2018	1,012	24.4	834	28.1	177
2019	1,143	13.0	718	-13.9	424
2020 상반기	290	-41.1	343	0.9	-5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부품	100	-25.0	29	-46.7
2	기타석유화학제품	55	-11.2	22	-20.7
3	자동차 1,500Cc 이하	56	-6.2	21	-21.7
4	의약품	15	5.1	16	74.5
5	기타정밀화학제품	2	-33.8	11	816.1
6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22	-5.3	10	0.5
7	자동차 1,500Cc 이상	15	-59.0	8	-30.8
8	정밀비합금강냉연강판	14	63.2	7	1.2
9	착색아연도강판	12	-2.0	7	11.4
10	기타플라스틱제품	19	9.9	6	-19.1

주: MTI 6단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2020년 상반기 기준,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기타석유화학제품, 자동차로 상위 3위 제품이 전체 수출 점유율의 약 25% 차지
- 콜롬비아의 제조업 기반 취약 및 기술 부족으로 기술집약적인 완성품 및 자본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한국의 콜롬비아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510	-4.1	214	-10.9
2	커피	92	2.6	44	1.5
3	동스크랩	57	28.9	22	-18.4
4	나프타	0	0	13	0
5	기타합금철	0	-100.0	11	0
6	바나나	0.9	7,007.0	9	3,962.8
7	커피제조품	9	40.1	4	-10.8
8	카네이션	4	53.8	3	22.8
9	농약원제	4	-59.9	2	-33.3
10	알루미늄스크랩	6	-34.8	2	-19.1

주: MTI 6단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對 콜롬비아 수입 현황

- 한국의 콜롬비아 10대 수입 품목은 1차 상품(유연탄, 커피)의 비중이 높았으나 유연탄의 경우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한-콜롬비아 투자 현황

연도별 對 콜롬비아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투자금액
2018	3,837
2019	1,652
2020년 3월 기준	609
Total	6,09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20년 8월 기준, 콜롬비아 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타이



어 등 총 20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이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 중

콜롬비아 내 한국법인 투자 현황 (2020.3)

(단위: 천 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2	165	249
운수 및 창고업	0	2	502	3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0	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3월 기준, 주요 투자 분야는 운수 및 창고업

참고자료: 콜롬비아 진출기업 리스트

No.	진출업체	진출연도	취급분야
1	현대종합상사	1980	종합
2	삼성물산	1983	종합
3	삼성전자	1997	가전, 통신, IT등
4	LG전자	1999	가전, 통신, IT등
5	TGL 콜롬비아	2006	물류
6	한국타이어	2008	타이어
7	포스코 인터내셔널	2010	종합상사
8	SK Holdings	2011	종합
9	누가베스트	2011	건강보조기구
10	LIG 넥스원	2011	방산
11	LG CNS	2011	교통카드
12	넥센타이어	2012	타이어
13	현대엔지니어링	2012	건설플랜트
14	범한 PANTOS	2013	물류
15	제일기획	2014	광고/서비스업
16	라인코퍼레이션	2014	모바일 서비스
17	삼성SDS	2014	ICT/물류
18	현대 글로벌 서비스	2019	서비스업
19	한스바이오메드	2019	의료기기/바이오
20	코리안리	2020	재보험

자료원: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한-콜롬비아 FTA 활용률 현황

○ 한-콜 FTA 활용률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

- 한-콜 FTA 전산업(MTI 기준) 활용률이 '19년도 누적기준 수출 시 52.9%, 수입 시 88.9%로 '16년도부터 활용률 증가세 추세는 유지중이었지만 '19년도에 전년대비 소폭 하락

* 활용률 산출법: 수출: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한-콜 FTA 연도별 활용률 변화(연도별 누계)

(단위: %)

	수출	수입
2016	17.4	66.4
2017	49.8	87.2
2018	53.0	90.3
2019	52.9	88.9

자료원: 관세청

한-콜 FTA 산업별 활용률(2019년 기준)

(단위: %)

산업별(MTI 기준)	수출	수입
농림수산물	0.2	93.5
광산물	1.3	99.8
화학공업제품	15.6	4.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7.8	74.1
섬유류	39.4	23.0
생활용품	16.7	82.8
철강금속제품	0.9	5.0
기계류	69.9	1.9
전자전기제품	56.5	65.3
잡제품	0	0

자료원: 관세청

○ 한-콜 FTA 산업별 활용률 현황

- 2019년 산업별 기준, 수출 시 한-콜 FTA 활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계류(69.9%)이며,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전자전기제품이 각각 57.8%, 56.5%로 집계
- 수입 시 광산물은 FTA 활용률 100%로 집계되었으며, 철강금속제품이 99.6%, 농림수산물이 91.6%



VI. 콜롬비아 비즈니스 및 체류 정보

1. 체류 정보

□ 환전

- 환 율 : US \$ 1 = 3,769.67 COP(페소) / 2020년 8월 9일 기준
- 시중물가 : 보고타의 경우 한국의 50~200%수준
(농산품의 가격은 저렴한 반면 공산품은 품목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 미화통용 : 시중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아 반드시 페소화 환전 필요
- 환 전 : 시중 환전소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은행 환율보다 조금 높은 편임
- 신용카드 : 주요 상점 및 레스토랑에서 신용 카드 사용은 일반화

□ 국제전화 이용방법

- 수신자 부담
 - 현지 국제교환 호출번호는 179, 159, 199등 3개이며, 교환원에게 직접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요청하고 상대의 전화번호를 주면, 교환원이 전화를 하여 요금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통화 연결
- 일반 국제전화
 - 콜롬비아에서 국제전화 코드는 005, 007, 009 등이 있으나 국영통신회사에서 운영하는 009가 통화 성공률이 가장 높음.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9+82(한국)+2(지역번호 예: 2(서울), 51(부산))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자동 연결



< 콜롬비아 시내 및 국제전화 거는 법 >

- ※ 국제전화식별코드 : 005, 007, 009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 시외전화식별코드 : 05, 07, 09 + 지역번호
- ※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법(휴대폰 사업자는 Claro, Telefonica, Tigo 등이 있다.)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03+식별코드+전화번호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식별코드+전화번호
 - 휴대전화 -> 유선전화 : 03+지역번호+전화번호
 - 해외에서 -> 휴대전화 : 57(국가번호)+식별코드+전화번호

□ 현지 팁 관행

- (택시) 택시 이용 시에는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으나 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 일부택시의 경우 택시트렁크로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식당)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만 포함되어 청구되며, 별도로 종업원이 음식 값의 10% 팁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물어봄
- (호텔) 호텔 투숙 시 객실 청소부를 위해 머리맡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1달러 또는 현지화 4,000페소 정도를 놓아두는 것이 좋음

□ 여행 시 안전을 위한 참고사항

- 보고타 및 일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치안불안 및 납치 위험이 있음
- 여권 및 신분증은 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신용카드, 신분증 등은 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는 것이 좋음
- 저녁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불가피한 경우 혼자 다니는 것보다 단체 이동이 안전함
- 강도를 만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하며 가급적 소지한 현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음



□ 기타 참고사항

- 응급전화번호는 '123'이 한국의 119, 112이며 앰블런스가 병원으로 이송
- 현지 특성상, 오염된 음식이나 식수 관리가 불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아 생수를 구입해야하며 현지 식당에서도 물은 별도로 주문해야함 (한국 식당 제외)
- 현지 전압은 110V로, 전압변환기의 경우는 한국의 110V를 사용해야 함

2. 한국 식당 및 주요 레스토랑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Casa de Corea (한국관)	Cra 14B #106-18	+57 (1) 749-8342
Arirang(아리랑)	Cra 14 #106A-86	+57 (1) 620-7249
Motomachi(모토마치)	Cra 8A #108A-36	+57 (1) 704-1239

※ 주요 연락처

- 駐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 전화 : 57-1-616-7200 / 8149 / 8872
 - 주소 : Calle 94 No.9-39, Bogota, Colombia
 - 코로나19 24시간 긴급연락처 : +57 321 976 3511
- KOTRA 보고타 무역관 연락처
 - 전 화 : (57-1) 637-5099
 - 주 소 : Calle 113 No.7-21, Torre A, Of.1201, Teleport Business Park
 - 이메일 : ktcbog@kotra.org.co



www.kotra.or.kr